

마트 과일코너서 '군침만'...겨울 과일도 너무 비싸네

전년대비 감귤 19.9%·사과 20.4%·딸기 60.4% 올라 폭우·폭염 등 이상기후에 탄저병 늘고 생육 부진 탓

“올해 과일 가격이 만만치 않았는데, 딸기와 귤 같은 겨울 제철 과일 가격도 비싸서 쉽사리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네요..”

29일 오전 광주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주부 김현숙(58)씨는 과일 코너 이곳저곳을 둘러 보며 과일을 손에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김씨는 한참 동안 과일과 가격표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할인’이라고 적힌 레몬 1봉지를 쇼핑카트에 담고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마트에 오기 전 딸아이가 딸기나 체리를 구매해 달라고 했지만, 가격이 예상보다 비싸 내려 놔다”며 “딸기나 사과 골드키위 모두 20% 가까이 할인하고도 작년보다 비싸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올 겨울 과일 섭취는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했다.

겨울 제철 과일 출하가 본격화 됐지만, 비싼 가격 탓에 구매를 주저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겨울 간식인 귤은 물론 딸기 등 여러 과일류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품유통 정보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감귤(10개) 소매가는 3732원으로 전년(3114원)보다 19.9% 올랐고, 평년(2969원)보다는 25.7%나 비쌌다.

감귤은 9월 이후 수확기 기상 조건이 좋고, 여름철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가 적어 생육이 원활했다. 그러나 생육기 여름철 긴 장마와 일조량 부족으로 궤양병과 검은점무늬병 등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총채벌레와 가을 곰팡이에 발생이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11월 감귤(5kg·상품) 도매가격을 1만672원으로 평년(8945원)보다 19.3%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감귤은 반입량 증가(3%)에도 불구하고 대체 과일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가격 상승할 것으로 봤다.

딸기 가격은 한숨이 나올 정도다. 이날 가락시장 기준 딸기(2kg·특급) 경락가격은 평균 6만3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 9275원)보다 60.4% 올랐다. 저온성 작물인 딸기는 올해 여름 잇따른 폭염으로 평년 대비 3주 가량 늦은 8월 말~ 9월 초

이에 심게 돼 출하가 늦어졌다. 특히 딸기 재배농가의 고령화와 고물가로 인한 경영비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면서, 출하량은 전년보다 6% 줄었고, 출하면적은 역시 7% 감소하면서 딸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사과와 배 단감 등도 전년보다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전년보다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과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지역 전통시장도 우울한 분위기다. 과일이 비싸 손님을 발걸음이 줄어든 데다, 팔리지 않아 상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날 찾은 광주지역 전통시장 시세도 2kg가 1만원을 가뿐히 넘었고, 사과는 4개에 1만원대로 비쌌다. 심지어 비싼 딸기는 아예 들여놓지 않은 점포가 대다수였다.

남광주시장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전반적인 과일 가격이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 제철 과일을 찾는 손님들이 많이 줄었다”며 “비싸게 사오면 비싸게 팔 수 밖에 없는데, 가격이 오르면 과일을 찾는 손님이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딸기는 다른 과일보다도 금방 상해서 빨리 팔아야 하는데 워낙 비싸서 안 팔리니 들여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29일 광주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과일 코너에서 한 주부가 비싼 과일 가격에 구매를 주저하고 있다.

광주은행

2023 광주광역시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88,200,000

광주광역시 | 사회적기업 |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29일 '광주지역 치매 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에 참여한 고병일(왼쪽 두번째) 광주은행장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치매 어르신 배회감지기' 후원금 전달

광주·전남도에 각 9천만원씩

광주은행은 29일 '광주지역 치매 어르신 대상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과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대삼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장, 김동기 광주아너소사이어티 대표가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매년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의 실종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실종 시에 조기 발견

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의 구매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날 광주시에 약 9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은 30일 전남도에도 배회감지기 지원사업에 사용되도록 약 9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는 배회감지기 총 600대가 지원될 예정이며, 광주·전남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배회감지기 보급 대상자를 모집, 광주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해 보급할 계획이다.

보급될 배회감지기는 'SKT Smart 지킴이2'로

기기를 소지한 치매 노인의 정확한 위치 정보와 이동 경로,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위급 상황 시에는 SOS 자동 호출 등 실종 예방과 위험 상황 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다.

고병일 광주은행 은행장은 “배회감지기 보급 지원이 치매 환자 실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가족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침으로써 지역 곳곳에 나눔 문화를 전파하고, 광주·전남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LH 영암학산 혼합임대주택 입주 시작

30일부터 120세대...청년·신혼부부 등 우선 공급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경)는 오는 30일부터 120세대 규모의 '영암학산 임대주택' 입주를 시작한다.

영암학산 임대주택은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66-2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행복주택 18호(16㎡·36㎡·46㎡), 국민임대 82호(29㎡·33㎡·46㎡), 영구임대 20호(26㎡)로 구성된 혼합단지다.

행복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우선 공급되며, 국민임대는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주변 시세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LH는 영구임대의 경우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

영구임대는 세대 내 벽걸이 에어컨이 설치돼 있으며, 행복주택 청년 공급유형은 냉방기와 세탁기, 가스쿠팡 등 빌트인 제품이 제공된다.

영암학산 임대주택은 초·중·고 등 교육인프라가 우수하고 가까운 거리에 전통시장과 병원, 행정복지센터, 파출소, 공공도서관 등 생활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정주여건이 우수하다.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LH영암센터)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농어촌공사 '사내벤처' 우수팀 선발

방초소년단·로컬메이커즈 우승

한국농어촌공사는 사내 기업과 육성을 위해 'KRC 사내벤처 팀 선발 IR 대회'를 열고 우수팀을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내벤처팀 선발 IR 대회는 전 직원 공모를 통해 발굴된 7개 분야(재생에너지·수자원관리·디지털·AI 등) 20개 아이디어 중 1, 2차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구체화시켰다.

이 중 '방초소년단' 팀의 '비농업분야 생태적 잡초 방제 서비스 사업'과 '로컬메이커즈' 팀의 '우마빌(우리 마을을 빌려드립니다)'이 최종 우

수팀으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은 협약 기간동안 벤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 벤처 조직구성 ▲사전 컨설팅·교육 실시 ▲별도의 사무 공간과 사업자금 등이 지원된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등 공사를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로, 농정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라며 “사내벤처 제도를 통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촌지역의 문제 해결 및 기존 사업의 틀을 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해양에너지, 스마트 계량기 실증 테스트 시작

㈜해양에너지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도산호반2차와 송정동 공항아파트 500여 세대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 계량기 '가스AMI' <사진> 모델을 설치하고 실증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에너지가 자체 개발 가스AMI 시스템은 한국전력에서 실증을 완료한 암호모듈 검증(KCMVP) 보안을 적용해, 공공에너지 보안성을 향상시켰다.

또 USIM 방식이 아닌 내장 타입의 SoC(System-On-Chip) 방식으로 가격을 낮추고 최적의 통신 기술을 접목시켜 AMI 통신망에 보안 강화했다.

가스AMI 설치에는 SK 텔레콤이 무선통신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린이엔에스는 원격검침 무선 모델 개발과 제작, 지구루는 보안솔루션과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았다.

정호(해양에너지 대표)는 “앞으로도 AMI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고객서비스 품질 제고 및 안전점검원과 검침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 계량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9.81(-1.95)
↑ 코스닥	822.44(+6.00)
↓ 금리(국고채 3년)	3.554(-0.094)
↓ 환율(USD)	1289.60(-4.10)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코로나 끝나니...다문화 결혼 역대 최대폭 증가

지난해 1만7천428건 25.1% 늘어...출생은 1천796명 감소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혼인이 줄어든 영향이 지속되면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29일 공개한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1만7천428건으로 전년보다 3502건(25.1%) 늘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폭 증가다.

2017~2019년 매년 증가세를 보인 다문화 혼인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2021년 각각 34.6%, 13.9% 감소했다가 지난해 3년 만에 증가

세로 전환했다.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7.2%에서 지난해 9.1%로 상승했다. 결혼을 한 10쌍 중 약 1쌍은 다문화 부부인 셈이다.

유형별로 보면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은 66.8%,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과의 혼인은 20.0%를 차지했다. 귀화자와의 혼인은 13.2%로 뒤를 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남편 연령은 45세 이상이 31.2%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19.3%), 30대 후반(17.1%) 순이었다. 다문화 혼인을 한 한국인 아내는 30대 초반이 24.6%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24.0%), 30대 후반

(14.9%)이 뒤를 이었다.

부부 간 연령 차는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 비중이 35.0%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3.0%로 가장 많았고 중국(17.8%), 태국(11.1%) 순이었다.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이 8.0%로 가장 많았고 중국(6.5%), 베트남(3.4%)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2526명으로 전년보다 1796명(12.5%) 줄었다.

다문화 출생아 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문화 혼인 건수가 줄면서 2020년과 2021년 각각 8.5%, 12.8%나 줄었다.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가 반등했지만 코로나19 확산 기간 다문화 부부가 줄어든 여파로 출생아 수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